

<2023年度 第4回定例研究会>

## 커뮤니티케어<sup>1)</sup>와 사회복지기관의 역할

일 시 : 2024년 1월 30일 (화) 17:30~20:00

장 소 : 구마모토학원대학 14호관 1421교실

언 어 : 일본어·한국어

### 1. 연구회 개최 배경

나라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 돌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 체계를 개선해 왔다. 일본의 2023년 고령사회백서에 따르면 2020년 10월 기준 일본의 65세 이상 인구는 3624만 명으로 인구의 29%이다. 2023년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한국도 65세 이상 인구가 950만명으로 인구의 18.4%를 차지한다. 특히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빨라 2025년에는 노인인구가 20.6%, 2035년에는 30%, 2050년에 40%를 넘 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회는 이러한 상황에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데 일조해 온 두 도시의 경험을 공유하였다.

### 2. 연구회 발표 내용

1부에서는 대전의 사회복지관장 두 명과 현재 구마모토학원대학에 교환교수로 와 있는 대전대학의 교수가 발표하였다. 먼저 유성구종합사회복지관의 황인정 관장이 ‘한국의 사회복지와 사회복지관’에 대해 발표하였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사회복지관 탄생 배경과 사회복지관의 성격 및 운영 방향에 대해 개괄하였다. 다음으로는 대전 성락중 합사회복지관의 이경화 관장이 ‘지역사회통합돌봄과 사회복지관이 역할’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끝으로 대전대학의 윤경아교수가 코로나 19가 시작되어 혼자 사시는 노인들의 집밖활동이 어려웠던 시기에, 대전지역 사회복지관들의 지역사회통합돌봄 활동과 성과에 대해 소개하였다. 본 연구회에서 발표한 대전시의 사례는 한국야쿠르트복지재단과 대전시 사회복지관협회가 연계하여 진행하였다. 한국야쿠르트에서는 사회복지관에서 선정한 저소득 독거노인들에게 야쿠르트의 건강음료를 배달하고, 대전시의 21개 사회복지관들에서는 각각 참여한 노인들의 욕구에 맞춰 교육 및 취미활동, 돌봄 및 일상생활지원, 안전망 구축을 중심으로 한 사업을 진행하였다. 특히 다수의 사회복지 관에서 노인과 자원봉사자, 혹은 노인과 이웃이 함께 교류하고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예를 들어, 함께 재배한 콩나물이나 함께 만든

---

1) community care 라는 용어는 나라나 학자에 따라 다르게 번역되는데, 일본에서는 지역포괄케어, 한국에서는 지역사회통합돌봄으로 번역되는 경우가 많다.

송편을 노인이 원하는 사람과 나눌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노인의 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 무언가를 만들거나 키워내고 다른 사람과 나눔으로써 심리적 균형감과 자아존중감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2부에서는 구마모토학원대학의 나스 교수가 지역포괄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구마 모토시의 실천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하였다. 또 지역포괄지원센터 설치의 법적 근거가 되는 개호보험제도가 변천 과정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였다. 나스교수는 지역포괄 지원센터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의 인지증이 있는 여성노인의 사례를 발표하였다. 사회복지는 전통적으로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환경 속의 인간’이라는 관점을 실천의 기본틀로 삼고 중요하게 적용해 왔는데, 이러한 틀 속에서 사회 복지사의 실천활동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대전의 사례발표에서는 한 노인을 대상으로 미시체계, 중간체계, 거시체계와 같은 환경에 대한 개입사례를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사회복지관의 사례관리(case management) 활동 속에서 이러 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전지역 사례발표에서는 코로나 19가 시작된 2020년 기업복지재단과 지역 사회복지관들의 연계로 이루어진 사업의 성과와 의미를 소개하면서 생태체계이론을 바탕으로 사회복지관마다 참여 노인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진행하였다. 생태체계이론에서 말하는 인간의 특징을 바탕으로, 노인이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 주변사람들과 교류하고, 또 자아존중감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다. 예를 들어, 취미활동으로 콩나물 키트를 활용해 콩나물을 키우고 키운 콩나물을 주변사람들과 나누는 활동을 통해 노인이 스스로 결정하고 사회적 교류를 만들어가는 방법을 통해 노인의 자아존중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업을 고안하였다.

### 3. 맺음말

본 연구회를 통해 노인을 대상으로 커뮤니티케어 활동을 하는 한국과 일본의 두 기관(사회복지관, 지역포괄지원센터)의 실천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짧은 시간 진행된 연구회를 통해, 진행된 프로그램의 성과와 의미에 초점을 맞춘 대전 사례와 생태체계관점에서 개인의 사례를 분석한 구마모토의 사례를 평면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커뮤니티케어 관련 서로의 관심사를 확인할 수 있었다.

# コミュニティケアと社会福祉機関の役割

## — 日本と韓国の実践経験 —

日 時：2024年1月30日(火) 17:30～20:00

場 所：熊本学園大学 第14号館 1421教室

言 語：日本語・韓国語

### 1. 研究会の開催背景

各国では、高齢化に伴う高齢者のケアを改善するために、政策の改正やシステムの改善が必要とされてきた。2023年の日本の高齢社会白書によれば、2020年10月時点で日本の65歳以上の人口は3624万人で、人口の29%を占めている。2023年の高齢者統計によれば、韓国も65歳以上の人口が950万人で、人口の18.4%を占めている。特に韓国は高齢化が急速に進んでおり、2025年には高齢者人口が20.6%、2035年には30%、2050年には40%を超えると予測されている。このような状況の中で、地域で要介護高齢者が引き続き住みながら、幸せな老後を過ごすためのシステムを構築するために、2つの都市の事例を紹介する。

### 2. 研究会の発表内容

第1部では、大田広域市の社会福祉施設館長2名と熊本学園大学に交換教授として来ている大田大学のユン先生が発表した。まず、ユウソン区総合社会福祉館のファンインジョン館長が『韓国の社会福祉と社会福祉機関』について発表した。具体的には、韓国の社会福祉機関の誕生の背景や性格、運営方針について概説した。次に、大田ソソラク総合社会福祉館のイギョンファ館長が『地域社会統合ケアと社会福祉機関の役割』について発表した。最後に、大田大学のユンギョンア先生は、新型コロナウイルスにより一人で暮らす高齢者の外出活動が困難だった時期に、大田広域市の地域の社会福祉機関の地域社会統合ケア活動と成果について紹介した。この研究会で発表された大田広域市の事例は、韓国ヤクルト福祉財団と大田広域市社会福祉館協会が連携して行われたことである。韓国ヤクルト福祉財団では、社会福祉施設で選定された低所得の独居高齢者にヤクルトの健康飲料を配達するとともに、大田広域市の21の社会福祉施設では、それぞれ参加した高齢者のニーズに応じて教育・趣味活動、ケア・日常生活支援、安全ネットの構築を中心とした事業を展開した。特に多くの社会福祉機関では、高齢者とボランティア、または高齢者と隣人が共に交流し、分け合う機会を持てるようプログラムを企画した。例えば、一緒に栽培したもやしや一緒に作ったお餅などを、高齢者が望む人と分け合うようにした。これは高齢者が自らの活動を通じて、何かを作り出したり栽培したりし、他の人とそれを分け合うことで心の

バランスと自己尊重を保つのに役立つと考えられる。

第2部では、熊本学園大学の那須先生が地域包括支援センターの役割と機能を熊本市の実践事例を中心に発表した。また、地域包括支援センターの設置根拠である介護保険制度の変遷過程についても詳細に説明した。那須先生は地域包括支援センターでの経験を基に、地域の認知症高齢者の事例を発表した。社会福祉は、伝統的に人間と環境の相互作用を強調する「環境の中の人間」という視点から重要に適用してきたが、この枠組みの中で社会福祉士の実践活動が行われる過程を詳細に説明した。大田広域市の事例発表では、高齢者を対象にしたミクロ、メゾ、マクロ領域から、環境への介入事例を発表してなかったが、社会福祉施設のケース管理運営の中での活動事例が説明された。その内容は、新型コロナウイルスが始まった2020年以降に、企業の福祉財団と地域の社会福祉施設との連携によって実施された事業の成果と意義、エコロジカルアプローチに基づいた社会福祉施設ごとに企画された支援対象の高齢者に適したプログラムの実施内容についてであった。アプローチ理論に基づいて各施設は、高齢者が自己決定に基づいて周囲の人々と交流し、そして自己尊重が維持できる方法を見つける活動をした。例えば、趣味活動としてもやしキットでもやしを栽培し、それを近隣住民と分け合う活動を通じて、高齢者が自己決定から社会的交流を作り出すあり方を通じて高齢者の尊厳を維持するための事業を考案した事例がある。

### 3. 終わりに

本研究会を通じて、韓国と日本の2つの機関(社会福祉機関、地域包括支援センター)が高齢者を対象にコミュニティケア活動を行う実践事例を共有する時間を設けた。短い時間で進行された研究会を通じて、紹介されたプログラムの成果と意義に焦点を当てた大田広域市の事例とエコロジカルアプローチの視点から個々の事例を分析した熊本市の事例を平面的に比較することは難しいが、コミュニティケアに関連するお互いの関心事項を確認することができた。

(研究会報告担当者 ユンギョンア)

(翻訳担当者 金吾燮)